

아·태관광기구 설립키로

부산선언 5개항 채택...도시서미트 오늘 폐막

13, 14일 이들 동안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12개국 23개 도시 대표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시아·태평양 도시서미트 도시회의가 「아·태 관광진흥기구」 창설 적극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아시아·태평양 도시서미트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15일 폐막한다.

14일 본회의에서 23개 참가 도시들은 △참가도시간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도시간 협력관계 확대 △민간경제인 의견 수렴해 투자 활성화와 통상 증진 도모 △친환경적 관광정책 추진 및 아·태관광진흥기구 창설 적극 검토 △실무차원의 회의 지속 추진 △2002년 회의 일본 후쿠오카 개최 등 5개항을 「부산선언」으로 채택했다.

<관계기사 3면>

이날 모두 3개 분과로 나뉘어 열린 본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도시간 교류와 교역증진」, 「관광산업 육성방안」 등을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벌였으며 도시의 국제적 교류를 바탕으로 각 지역간 네트워크 강화와 경제협력 활성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오후 참가 도시 대표 주관으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안상영 부산시장은 「이번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동부산권에 아·태서미트 가로나 공원을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북한이 한 도시가 참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철수 전 WTO 사무차장은 13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투자 박람회 부산 개최 △아시아·태평양 도시정보 네트워크 개설 △도시간 당면과제 해결과 논의를 위한 포럼개설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상현 이원기자



14일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태평양 도시서미트 전체회의에서 안상영 부산시장이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김동하기자

‘관광산업 구심점’ 부산 위상 제고

亞太 도시 서미트회의 결산

도시간 상호교류·교역증진 물고 부산 국제회의 유치·활성화 계기

13, 14일 이들 동안 부산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서미트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 23개 참가도시간의 상호 교류와 교역 증진을 위한 기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오는 2002년 아시아 게임과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 부산의 위상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회의 결과는 「도시간 교류와 교역 증진」을 주제로 열린 제1분과 회의에서 지구촌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고 도시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교류 증진을 위한 목표달 성은 계기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도시들은 한해 도시의 국제적 교류를 바탕으로 도시간 협력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A분과회의에서는 관광산업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있

는 가장 중요한 경제분야라는 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 각 도시는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부산시가 제안한 「아·태 도시 관광진흥기구(TPO)」 창설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 웹 사이트 개발, 상호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돼 차기 후쿠오카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가 전개돼 각 지역간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와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성과의 의미-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전세계적인 불황과 추세에 대응해 아·태 지역 23개 도시간에 상호교류와 교역증진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14일 오전 열린 아·태 도시 서미트 본회의에서 참가 도시 대표단이 원만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동하기자

안상영 부산시장은 「상호 교류를 통한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반이 이번 회의에 마련됐다고 전제하고 「부산시가 제안해 적극 추진키로 한 아·태 도시관광진흥기구의 창설은 이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전 WTO 사무차장이 기조연설에서 밝힌 아시아·태평양 무역

역투자 박람회 개최도 이번 회의에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함께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의 산업 관광 문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와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며 오는 2001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건넌터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 각종 국제회의의 유치 및 활성화를 계기가 됐다.

특히 상하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싱가포르, 후쿠오카 등 부산 자매도시 시장들과 안상영 부산시장의 개인 회담은 이들 도시와의 공동 관심사와 환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앞으로 부산의 외자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현기자

도시국가化 세계적 추세... 전략적 제휴 절실

제4회 아·태 도시서밋 3국 시장 주제발표

뉴질랜드 오를랜드

크리스틴 플래처 시장

국민국가의 개념은 퇴색하고 도시 국가가 부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미래에 도시가 성공하려면 각 시의 비교우위를 잘 살려 서로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와 시의 협력과 연대는 지금 막 시작된 새 시대의 필수적 요소다.

우리는 시민 교육기관 경제적 정부 담당 스포츠 및 문화단체들이 서로 연계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관계를 증진하고 교류를 지원해 서로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오를랜드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현대 도시다. 오를랜드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인 1백20만명이 살고 있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다. 오를랜드 시민의 35%는 외국인들이다. 이런 다양성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천명 이상의 한국인 또는 한국계 시민도 포함돼 있다.

우리의 과거를 바탕으로 외부 세계와 연계해 스스로 적용하며 자신있게



드 젊은이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해 6월에는 광저우에서 영화의 마무리 부분을 제작해 양국의 영화산업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후쿠오카시 및 광저우시와는 지금 까지 도시계획과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교류가 이뤄졌다.

또 오를랜드시와 부산시는 200여권의 도시를 서로 교환하는 도서관 장서 교류행사를 가졌으며 또 양시는 연례 문화교류행사를 갖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오를랜드의 한국

“시민 35% 외국인... 다양한 문화적 토대 갖춰

부산과 문화교류행사등 국제관계 유지 강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배우는 도시가 되고자 한다.

오를랜드시는 도시간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미 자매도시 우정의 도시들과 여러 분야에서 무역과 교류를 증진시켜 왔다.

오를랜드는 지난 87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후쿠오카시 청소년 교류행사에 참여해 청소년들이 상호 관계를 확립해나감으로써 양 도시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 오를랜드 기업들은 지난 3년간 후쿠오카 무역박람회에 참여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이 박람회까지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오를랜드시와 중국 광저우시는 경제개발 담당 직원 2명씩을 서로 파견해 상대방 도시에서 살고 일하는 체험을 함으로써 양 도시의 이해를 높였다.

광저우의 영화 촬영팀은 99년 2월에 오를랜드를 방문해 ‘어느 오를랜드

교민들의 요청으로 오를랜드 시민들을 위해 합창단과 무용단을 파견해 교류했으며 앞으로 무역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오를랜드시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제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를랜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도시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잘 엮어서 우리 시의 여러분이 이런 관계에 참여하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려고 한다.

오를랜드시는 이런 교류 사업에 대한 우리들의 활동을 알리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높이려고 한다. 앞으로는 무역 교육 관광활동 등 모든 부분에서 아·태지역 여러 도시들과 긴밀한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만남을 증진시켜나갈 것이다.

안상영 부산시장



세계관광기구(WTO)에 의하면 전 세계 국제 관광객 수는 2020년에는 15억6천만명으로 98년의 6억3천5백만명보다 약 2.5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2020년에는 98년의 8천6백만명보다 4.6배가 증가한 3억9천7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산은 200여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국 제1의 해수욕장인 해운대를 비롯한 6개소의 천연 해수욕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부산의 자랑거리다.

부산은 태평양의 거점도시라는 도시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동부산권 서부산권 중부산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관광개발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정책 수립을 위한 보다 효율적 방안으로서 아·태 도시 서밋 산하에 회원도시 도시 망국과 민간이 참여하는 ‘아·태 도시간 관광진흥기구(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the Asian-Pacific Cities, TPO)’를 창설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이 기구를 통해 회원 도시들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손을 잡고 회원도시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관광산업 공동발전과 친환경적 관광산업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

“호혜적 협력 관계 형성시 무한 성장 기대

회원도시간 관광진흥기구(TPO)창설 제안”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라페스티벌 등 세계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문화예술행사를 더욱 확대시켜 관광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부산관광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말레이시아 스타크루즈사의 호화유람선이 부산에 취항했고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북한의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는 유람선이 지난 3월부터 주 1~2회 부산에서 출발하고 있는 등 부산은 국제 및 국내 크루즈 유람선의 중심항으로 발전할 것이다.

끝으로 아·태 도시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관광산업은 특성상 국가간 또는 도시간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면 서로가 협력할 때 보다 큰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산시는 아·태 도시들의 관광산업 공동발전과 친환경적 관광

이다. 관광산업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아·태서밋 회원도시 상호간에 관광에 대한 정보교환, 회원도시들이 참여하는 관광박람회의 개최, 회원도시들을 소개하는 관광 홍보물의 공동제작, 회원도시간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주의원칙하에 지방세 감면 등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친환경적 관광산업 개발은 각 도시 교류의 분야와 도시간에 협력할 분야로 나누어 상호간의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산시의 제안이 적극 검토 논의돼 아·태 도시간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환경에 대한 의식이 고양됨으로써 시민들의 복리가 한층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 천년의 아시아 태평양 도시 경제 발전을 주제로 13~15일 부산에서 열린 제4회 아·태 도시 서밋 회의 각 분과위원장들의 주제발표 요약문을 소개한다. 제1분과 분과위원장 뉴질랜드 오를랜드 크리스틴 플래처 시장의 「도시간 교류와 교역증진과 제2분과 1팀의 분과위원장 안상영 부산시장의 「관광산업의 육성방안」, 제2분과 2팀 분과위원장 일본 후쿠오카시 야마사키 히로타로시장의 「후쿠오카시의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요약해 실는다. 정리=박삼현기자

일본 후쿠오카

야마사키 히로타로 시장



일본관광공사가 발표한 세계 관광 산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97년 전세계 관광 및 관광 관련산업 투자 세수는 3조4천6백10억달러이며 세계 총 GDP의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께는 8조8백억 달러로 증가해 세계 총 GDP의 1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내 내국인 관광객 추세를 살펴 보면 숙박 관광객의 수는 98년 2억5백만명이었다. 1인당 일년에 평균 1.62일을 여행한다는 것이다. 반면 98년 일본의 해외여행객 수는 전년 대비 5.9% 하락한 1천5백81만명에 머물렀다.

후쿠오카시의 경우 98년 도시를 찾은 관광객 수는 1천5백만명을 기록했다.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내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또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일본을 방문하는 아시아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서 98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후쿠오카시를 방문한 1천5백만명 가운데 4백8만명만이 숙박을 했으며 이 가운데 37만

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펼쳐고 있다.

이와 더불어 후쿠오카시 정부는 5월에 열리는 하카타 돈타쿠 합판 축제, 7월의 하카타 지은 아마카사 축제 등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축제를 후원함으로써 행사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또한 호텔 운송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교육을 실시해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후쿠오카시 서부의 시사이드 모모

“98년 1,500만명 방문 관광산업 주된 수입원

아시아 교역 요충지위해 도시 인프라 확충”

명은 외국인 여행객이었다. 외국인 관광객들 중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온 이들로 숙박 여행객의 82%를 차지했다.

후쿠오카시는 3차 산업이 도시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 요식업, 서비스 산업이 도시 전체 사무실 및 회사의 88.4%를 차지한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살펴볼 때 후쿠오카 시를 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관광산업 육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쿠오카시의 관광 마케팅은 도시의 역사적 유산 및 명절 등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의미의 관광 뿐 아니라 도시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도시형 관광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세계 학계 및 정부 기관간의 연계 사업체인 후쿠오카회의 및 관광객 사 무소와 함께 후쿠오카시 홍보팀을 국내외로 파견해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

치 지역에 위치한 후쿠오카 돔은 일본 최초로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지붕을 설비한 곳으로 98년 완공됐다.

도시 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카날 시티 하카타, 하카타 리버라인과 같은 쇼핑센터도 세워졌으며 매년 1천3백만명 이상의 국내의 관광객들로 붐비는 카날시티는 후쿠오카시의 자랑이기도 하다.

후쿠오카시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만큼 21세기 아시아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후쿠오카시는 도시 인프라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동시에 환경 보존에도 애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 일원으로 서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제 관광교류를 촉진시키고 또한 이러한 원칙 아래서 관광산업 전반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0/5/15(日) 중앙일보

亞·太관광기구 창설 검토

제4회 도시 서밋회의 ‘부산선언’ 채택후 폐막

제4회 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밋 회의에서 11개국 22개 도시 대표들은 공동선언을 위해 도시간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키로 했다. 또 아·태 관광기구 창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14일 오후 폐막했다.

참가국 대표들은 회의 이틀째인 14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서분과·전체 회의를 갖고 ‘부산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참가 도시간 네트워크 활용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 적극 발굴 ▶관광산업 공동 협력과 아·태 관광기구 창설 적극 검토 ▶실무자 회의 계속 추진 등이 포함됐다.

부산시는 분과회의에서 아·태 도시간 홈페이지를 서로 연결해 상품·문화·관광·도시홍보 등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APC (Asia Pacific City)’ 구축을 제안했다.

시는 또 참가 도시간 상공회의소 연합 인터넷 사이트인 ‘e-Chamber APC’와 도시간 경제연구소를 연결하는 ‘e-ERI APC’ 개설을 위한 실무진 구성도 제안했다.

시는 아·태 도시들의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정책 공동 수립을 위한 ‘아·태 도시간 관광기구’ 창설도 제안했다.

아·태 도시 서밋 회의는 아·태 도시의 위상 제고와 도시간 협력기반 구축, 도시문제공동 해결을 목적으로 1994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열렸다.

김관중 기자

'포·태 도시서미트' 오늘 개막

12國 23개도시 108명 참가

부산시 역사 이래 최대 국제회의인 '제4회 아·태 도시서미트 회의'가 13일 개막된다.

15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될 이번 회의에는 개최도시인 부산을 비롯해 일본 후쿠오카, 뉴질랜드 오클랜드, 중국 상하이, 하와이 호놀룰루 시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 23개 도시 대표 108명이 참가, '새 천년 아시아·태평양 도시의 경제발전 방향'을 주제로 도시간 교류증진과 관광산업 육성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13일 개막식에 각국 참가도시 대표와 국내 인사 300여명이 초청된

가운데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의 환영인사와 김철수(金喆壽) 전세계 무역기구(WTO) 사무차장의 '세계화 시대의 아시아·태평양 도시간 협력증진: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의 기조연설, 동래학춤 등 부산민속공연이 펼쳐지고 해운대에선 불꽃놀이도 벌어진다.

14일엔 참가 도시 대표들이 3개

분과로 나눠 토론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장은 이날 전체회의와 공동기자회견에서 아·태 도시서미트 회원도시 모두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관광진흥기구 설립과 내년 부산 컨벤션센터 개관에 맞춘 국제관광박람회 개최를 제안할 예정이다.

/金榮喆기자 yckim@chosun.com

부산 포·태도시서미트회의의 개막

오늘 12개국23개도시 시장 참가-교역증진등 논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 정상회의인 제4회 아·태 도시서미트회의가 13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다.

새천년의 아시아·태평양 도시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15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23개 도시 시장들이 참가해 이 지역 교류증진과 관광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한다.

14일 오전9시부터 열리는 분과회의에는 도시간 교류와 교류증진, 관광산업의 육성방안 등 2개 주제를 놓고 토의한다. 제1분과 도시간 교류

와 증진에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크리스틴 플래처 시장이 이 지역 도시간의 교류증진을 위해 청소년과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도시간 무역투자사절단의 교환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2분과 관광산업의 육성방안에서는 안상영 부산시장의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의 관광산업 공동발전과 친환경적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아·태도시간 관광진흥기구 창설을 제안한다.

시는 회원도시들이 참여하는 관광박람회와 관광홍보물을 만들고

회원도시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 이 지역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 기구를 통해 상호 관광산업을 진흥한다는 원칙아래 지방세 감면등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기간에는 참여도시 대표단과 시민 5천여명이 참여하는 시민화합한마당(13일 오후8시30분 해운대해수욕장)과 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공연(15일 오후 5시30분 부산문화회관)등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ked.co.kr

亞太 도시 서미트회의 '부산선언' 채택

어제 폐막...공식일정 끝나

제4회 아·태 도시서미트 회의의 이틀째인 14일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 등 12개국 23개 도시 대표들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아·태지역 도시들의 결속과 협력관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선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아·태 지역 도시간 네

트워크 강화, 경제협력 활성화, 관광산업진흥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경제협력 및 투자 활성화, 관광산업육성 및 친 환경적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 등을 구축키로 했다. 대표들은 또 아·태 도시간 홈페이지를 연결한 '디지털 APC(Asian Pacific Citis)'와 '아·태 관광진흥기구' 창설을 위한 협력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朴柱榮기자 park21@chosun.com



◇14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국 23개도시 대표들이 각 도시의 경제

아·태관광진흥기구 창설 합의

아·태 도시서미트 폐막 도시간 협력관계 확대등 5개항 '부산선언' 채택

아시아 태평양지역 12개국 23개 도시 관계자 109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에서 열린 제4회 아·태 도시서미트가 1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회원국간 상호교류와 교역증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시간 협력관계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와 통상증진 ▲친환경적 관광정책 추진 및 아·태 관광진흥기구(TPO) 창설 ▲실무차원의 회의지속추진 ▲2002년 회의 일본 후쿠오카 개최 등 5개항의 '부산선언'

을 채택했다.

부산시는 특히 이번 회의를 부산의 산업, 관광, 문화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2001년 개관예정인 부산전시컨벤션센터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했다.

또 안상영(安相英)부산시장은 중국 상하이, 베트남 호치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자매도시 시장들과 잇달아 개별 회동, 전방위 외교로 공동관심사와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부산의 외자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시장은 "부산시가 제안해 채택된 아·태도시 관광진흥기구 창설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 도시 참가 방안도 모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산=박상준기자
sipark@hk.co.kr

'경제·관광' 증진 협력관계 구축 인터넷 통한 정보교류 공감대

4회 아태도시시미트 분과회의 토의 요지

방목 관광업과 관광지원 개발, 그리
고 관광업 진흥에 있어서 관광
청과 각 지방 정부, 개인 및 비정부기구
들, 주민 사이의 전략적 제휴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과 패키지화로 경제적인 코스 등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관광업은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화 환경 등에까지 영향을 줌으
로써 태국의 각 도시는 상품과 서비스
수요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자매도시간 호혜성 적극 개발

브리즈베인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도시화, 경제의 세계화
가 던져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상거
래, 무역, 경제관계를 지배하는 법과
협약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고
매 오를랜드 신진 서마담 까오송 등과
의 자매도시간에 상호 우호적인 교류를
촉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따리엔 관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환경친화적 도시 개발과 관
객을 위한 특별활동(따리엔 아가시아
목 축제행사 11년 실시 등)를 개발하고
있다.

'도시형 관광'에 역점

후쿠오카 3차 산업이 도시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 요식업, 서비스 산업이 도
시 전체 사무실 및 회사의 88.4%를 차
지한다. 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
시키는데 관광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도시의 역사적 유산 및 명절
특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의미의 관광
뿐 아니라 도시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
대로 즐길 수 있는 도시형 관광에도 역
점을 두고 있다.

세계 최대 정부기관간의 연계 사업체
인 후쿠오카회의 및 관광객사무소와 함
게 후쿠오카시 홍보단을 국내외로 파견
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펼치
고 있다. 이와 함께 5월에 열리는 하카
타 문화 행만 축제, 7월의 하카타지
온 아마카사 축제 등을 비롯한 각종 행
사와 축제를 후원하고 있다. 또 호텔
운송 등 관광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교육을 실시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특히 외국
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
공하는 후쿠오카 웰컴 키드는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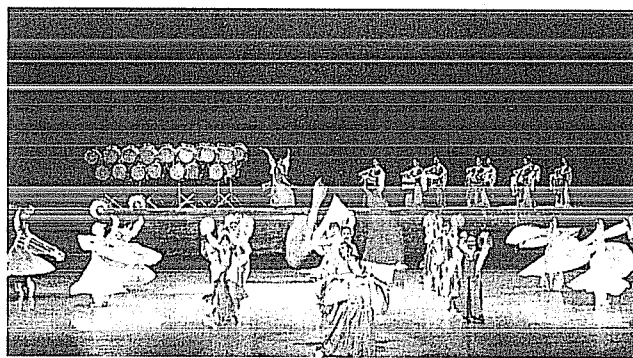
광저우 중국 정부는 관광업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
가 아니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의 관할 하에 있거나 자치 지
역인 22곳 등 시가 관광업을 경제 개발
의 중추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호치민 수년간 심각한 경제위기를
이끌었던 중앙 계획경제하의
체제된 경제 상황 속에서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부터 '도이모이'라는 이

률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 개혁의 물
질을 도입했다. 베트남의 빠른 성장 뒤
에 숨은 원동력은 개방과 세계 경제 통
합의 직접적 성과물인 수출과 외국자본
의 직접 투자다.

태평양 지역문화 바탕

호놀룰루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관광객들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지점인 High
Traffic location 등에 Aloha Kloaks를 더
설치하고 있다. 태평양 자태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조건으로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다. 하와이적인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관
광지 등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제4회 아태도시시미트의 개최 기념 문화행사가 15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참가국 회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역특성 한껏 살리고 네트워크 강화 자연 역사 문화 유산 관광지원화 중시

이포 1989년 이포시가 후쿠오카시
와 공식 자매결연 조인을 한 이
래 양 도시는 산업 경제 문화 스포츠의
상호교류를 위해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후쿠오카는 여러 가지 기술적 분
야에서 이포를 지원했는데 이포의 '일
본공원'이 그 중 하나다. 이포 또한 후
쿠오카의 중요한 투자지가 되어 왔다.
양 도시는 이제 상호 교역 및 산업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서비스 도시' 면모 갖춰

자카르타 행정 유통 금융 관광 정
보 중심지라는 5대 지원축
을 중심으로 서비스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양국적인 경제권
등의 중심지인 자카르타는 밀접한 경
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무역과 서비
스 분야가 65%, 건축과 산업이 29%, 농
업이 0.2%를 차지하고 있다. 북자카르
타민을 신규 사업 기지로 개발과 MRT
네트워크도 건설할 계획이다. 도쿄 서
육 배틀린 파리 베이징 등의 주요도시

들과 자매 협력관계를 개발하고 있다.
가고시마 남북을 가로지르는 30km
의 해안선을 자랑하며 환
경친화적인 동시에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키티규슈 시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방치된 역사적 중요
성을 지닌 건축물들을 관광산업의 자원
으로 활용하고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 또 축적된 산업기술을
활용해 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환경기술과 노하우, 인력자원을 개발하
는 긍정적 부대효과를 가져왔다.

금융·비즈니스 중심지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수도
로 금융 및 비즈니스
의 중심지. 미팅, 인센티브여행, 컨벤
션, 전시(MICE) 등 활동이 쿠알라룸푸
르와 인근지역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고. 교통편의 개선, 휴양지 시설에 도시계
획을 집중시키기 등 국제적인 휴양도시
로 발전하고 있다.

나가사키 사적지가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사적지의 보존과
운영은 중요한 일이다. 나가사키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은 점차. 특징은 환경에 대한 영감이
최소라는 점과 사용이 용이하다는 것.
앞으로 문화유산과 환경친화적인 진자
를 연결함으로써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
갈 것이다.

2002년 월드컵 개최지. 스포
츠 공원 개발과 관련해 지역
의 미개발 삼림 보존이 가장 중요한 관
심사다.

관광진흥기구 창설 제안

부산 태평양의 거점도시라는 위상
에 걸맞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동부산권 서부산권
중부산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게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국
제록페스티벌 등 세계의 예술가들이 참
여하는 대중적인 문화예술행사를 더
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부산시는 아·태 도시들의 관광산업
공동발전과 친환경적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보다 효율적 방안으로 아·태 도
시 시미트 산하에 회원 도시 방국과 민
간이 참여하는 '아·태 도시관광진흥기
구(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the Asian-Pacific Cities:TPO)'를 창설할 것
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 기구를 통해 회원 도시들은 공공
및 민간부문이 손을 잡고 회원 도시들
의 상호 이익을 위해 관광산업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교류의 기본적인 견해
를 바탕으로 중국·한국과 국제
교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메일 인
터넷 등 비용이 덜 드는 다양한 교류
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컨벤션 투어 확충 주력

상하이 중국은 인적 문화적 사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기용이
고 최근 몇 년간 국제 비즈니스 투어
와 국내의 전시 및 컨벤션 투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루무치 중국의 신지앙·위구르
자치구의 수도. 유럽아시아
대륙교통의 중심지로 신지앙성의 경제
문화 교류 교역인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관광업의 중심이 될 것이며 타지르
타그 호수와 코그다 봉우리가 그 핵심
이 될 것이다.

아·태 도시시미트 회의는 96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2년에 한번씩 회원 도시들 순회하며 열
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이 유
일한 회원도시다.

(李相희)

*'수평선'과 '시정만평'은 3면에 옮겨 실립니다.

시 제안 '亞-太관광진흥기구' 창설

15일 폐막 도시서미트서 부산선언 5개항 채택

부산시가 제정한 '아태관광진흥기구' 창설이 가시화됐다. 15일 폐막한 아시아-태평양 도시서미트 회의에서는 이날 '아태관광진흥기구' 창설 적극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아시아-태평양 도시서미트 부산선언을 채택했다. 부산 개항 이래 첫 대규모 국제회의인 제4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는 부산시 주최로 14, 15일 이틀 동안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12개국 23개 도시 시장 등 대표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시를 비롯한 23개 참가 도시들은 14일 전체회의에서 △참가 도시간 협력관계 확대를 위해 상호 네트워크 최대 활용 △민간경제인 의견을 수렴해 투자 활성화 및 통상 증진 도모 △친환경적 관광정책 추진 및 아태관광진흥기구

투자활성화·통상증진

창설 적극 추진 △실무자 차원의 회의 지속화 △2002년 회의 일본 후쿠오카 개최 등 5개항의 '부산선언'을 채택했다.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참가 도시 대표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동부산권에 '아태 서미트 가로와 공원을 지정'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한 도시가 앞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는 도시간 교류와 교역증진, 관광산업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3개 분과별로 토론을 벌였고, 참가국들은 도시의 국제적 교류를 바탕으로 각 지역간 네트워크 강화와 경제협력 활성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부산시장은 오전 전체회의

디지털APC 개설 제의

에 앞서 열린 제2-A분과회의에서 △아태 도시간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APC(Asia Pacific City) △아태관광진흥기구 창설 등 2개항을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한편 김철수 전WTO사무차장은 13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무역투자 박람회 부산 개최 △아시아-태평양 도시정보 네트워크 개설 △도시간 당면과제 해결과 논의를 위한 포럼 개설 등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부산시장은 이번 회의의 의장으로서 공식회의를 원만하게 추진했고 부산시와 자매결연을 한 일본 후쿠오카시 등 5개 도시의 대표들과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등

자매도시대표 연세회동

전방위 외교를 펴 역량을 인정받았다. 부산시는 이번 회의기간 중 참가도시대표들을 명소와 2002년 아시아게임 및 월드컵이 열리는 주경기장,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등으로 안내했다.

15일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문화회관에서 열린 '우리소리 우리춤' 민속공연을 안내하는 등 앞으로 부산이 경제 문화 관광 등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되는 잠재력을 과시했다.

<金明順>

'관광중추 부산' 잠재력 과시

제4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회의 성과

부산 개항 이래 첫 대규모 국제행사인 13,14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회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시가 제안한 '아태 관광진흥기구' 창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역대 12개국 23개 참가 도시간의 상호교류와 교역증진 등을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를 주최한 부산시는 △아태관광진흥기구 창설 가시화 △부산 전시-컨벤션센터의 국제회의 유치 △2002년 아시아게임 및 월드컵 중보 △디지털 APC(Asia Pacific City) : 아태 도시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환 시스템)운영 제의 △제1회 아태 무역 투자박람회 부산개회를 위한 인식대 조성 등을 통해 '관광부산'의 위상과 잠재력을 과시했다.

제4회 아태도시서미트 부산회의의 최대 성과는 지구촌의 글로벌화 및 전세계적인 불황과 후세에 아태지역 23개 도시가 각기 대응해 나가면서 역대 상호간 교류와 교역을 증진하자는 결의가 도출했다는 점이다.

부산시장은 "이번 회의는 상호 교류를 통한 실질적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부산시가 제안해 적극 추진하기로 한 아태 도시관광진흥기구의 창설은 역대 관광산업 육성의 중요한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엔 부산의 산업 관광 문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는 물론 오는 2001년 개관 예정인 부산전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장으로서 기능 발휘가 충분하다는 인식을 이끌어냄으로써 각종 국제회의의 유치와 활성화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이번 회의의 의장직을 맡은 부산시장은 부산의 자매 도시인 중국의 상하이·베트남의 호치민·캐나다의 오톨랜드·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역내 도시간 교류·교역증진 기반 구축 각종 국제회의 '부산개회' 공감대 도출



13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4회 아태도시서미트 개최식에서 참가도시 시장들이 상견례를 치르고 있다.

크·일본의 후쿠오카 등 시장들과 차례로 개별회동을 가졌다. 부산시장은 이들 도시들과의 교류 및 교역증진을 비롯해 공동관심사와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 접합점을 찾아냄으로써 부산의 외자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촉진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채택은 되지 않았으나 역대 공동의 이익 실현의 한가닥 가능성으로 인식하게 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투자박람회 개최'(김철수 전 WTO 사무차장의 기초

연설)제의 등도 높이 평가되는 대목이다.

'세천년 아시아-태평양 도시 경제발전'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는 '도시간 교류와 교역 증진'을 주제로 한 제1분과회의와 '친환경적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한 제2-A·B분과회의 등 모두 3개 분과로 나뉘어 과제를 토론, △경제협력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등 공감대를 도출했다.

제1분과회의는 도시의 역할이 지구촌의 글로벌화 추세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시간 교류증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각 도시들은 상호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구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2-A분과회의는 관광산업이 사회 전반에 걸쳐 21세기 기간산업이며 도시발전에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 부산시가 제안한 '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TPO) 창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공동분도' 도출은 각 도시는 자연 역사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결과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 웹 사이트 개발을 통한 상호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 차기 후쿠오카회의의 정식의제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 동아시아 경제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전개되는 등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金明順>